

자카르타서 분 '남북 혼풍'... 6회 연속 종합 2위 노린다

2018아시안게임 D-1

우리나라 39종목 1044명 선수 참가
병역혜택 걸린 남자축구 시선집중
여자농구 등 남북 단일팀 구성 '관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오는 18일(한국시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16일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 지역에서 개최된다.

아시안게임은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가운데 아시아지역 45개국 약 1만명의 선수들이 3주간의 일정으로 다채로운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39종목에 104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6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축구와 농구 등 일부 구기종목들이 개막식 이전에 일찌감치 경기를 치른 가운데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15일(한국시간) E조 조별리그에서 6-0으로 바레인을 꺾었다.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U-23)은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손흥민, 조현우, 황희찬이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스타로 주목 받고 있고 이승우, 황희찬 등 경험 많은 젊은 선수로 구성된 역대 최고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자축구 조별리그 E조에 속한 한국은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시 잘락하루팟 스타디움'에서 17일(한국시간) 오후 9시 말레이시아, 20일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GBK)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A조 예선 남북단일팀 대 인도네시아의 경기. 현지 교민들이 한반도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서 단일팀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9시 키르기스스탄전 일정을 앞두고 있어 모두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국이 무난하게 E조 1위를 차지한다면 16강전은 일본 또는 베트남과 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 경기를 보는데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의 병역 혜택이 걸린 남자축구의 우승 여부다. '아시안게임군 면제'라는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전력도 좋아 어떤 경기보다도 축구 경기가 이목을 집

중시키고 있다.

시범종목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에 선정된 e스포츠도 흥행 여부에 따라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팀은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2 종목에 출전한다. 최우범 감독과 김기인, 한왕호, 이상혁, 조용인, 고동빈, 박재혁 등 6명이 출전해 한국의 e스포츠 초대 챔피언 등극 여부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e스포츠처럼 이색 종목도 눈길을 끌고 있다. 그중 몸 대신 머리를 써야 하는 카드게임 '브리지'는 52장의 카드에 담긴 모양과 숫자를 보고 경위의 수를 계산하는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GBK)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A조 예선 남북단일팀 대 인도네시아의 경기. 108-40으로 대승을 거둔 단일팀 선수들이 경기 종료 후 종합대회 단일팀 사상 첫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으로 81세 할머니 선수(말레이시아)가 출전하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지만 한국은 출전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패러글라이딩과 제트스키 등 레저스포츠도 이번 대회 정식 종목으로 합류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남북 스포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이 각각 출전해 경쟁하지만 여자농구,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은 단일팀 '코리아(COR)'가 구성돼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고수가 치는 북소리에 맞춰 10명이 한 배에서 노를 저어 속도경쟁을 하는 카누 드래곤보

트(용선) 경기도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다.

한편, 한국 여자배구는 김연경(30·터키 엑자시바시)의 합류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고 있다. 특히 '배구 여제' 김연경의 라이벌로 성장한 중국의 주팅(24·터키 바키프방크)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해 김연경과 주팅의 맞대결은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배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중국은 국제배구연맹(FIVB) 랭킹 1위고 한국은 랭킹 10위다. 이번 대회 여자배구는 A, B조 1~4위가 8강에 진출해 크로스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지역 한복문화 발굴 나선 문체부

2018 한복 포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센터
'지역 한복문화를 말하다' 주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2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에서 '2018 한복포럼'을 연다.

'지역한복문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복 분야의 민간단체, 한복업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지역 한복문화 실태와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1부에서는 부산광역시의 '한복길 개발', 충청남도 서천의 '한산모시문화제' 등 국내 사례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복식 활용 우수 사례 등 해외 사례 발표와 정책 제안이 이어진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복 관계자 4명이 지역 한복문화 발굴을 위한 문화진흥정책을 토론한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에서 올해 신규 사업인 '2018 한복문화주간'을 소개해 한복 관계자들의 이해와 동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0월 15일~21일 전국에서 열리는 '한복문화주간'은 서울에 집중돼온 한복 문화 향유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지역의 한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런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복 관계자들의 소통과 연계망을 강화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aker@



노스페이스, 아시안게임 '팀코리아 단복 컬렉션' 출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공식파트너인 노스페이스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의 개막을 맞아 '팀코리아 단복 컬렉션'을 출시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추첨을 통해 단복을 제공하는 기념이벤트를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진행하며 당첨자 중 일부에게 본인 이름의 미니설이나 코리아 등 특정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 커스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노스페이스

넥센타이어 KPGA 코리안투어 공식후원

넥센타이어가 국내 프로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KPGA 코리안투어 '동아회원권 그룹 부산오픈'을 공식 후원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경남 양산에 위치한 '통도 파인리스트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약 140명의 프로 골프 선수가 참가한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공식 후원을 통해 필드 내 홈, 페어웨이와 그린보드 등을 통해 브랜드를 노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세인트나인' 골프공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오늘의 날씨

8월 17일(금)
음력: 7월 7일

수도권 날씨
34~2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49 | 해질 / 19:23

연천 18/33
동두천 20/33
가평 18/33
파주 19/33
서울 24/34
양평 19/33
인천 24/33
수원 22/33
용인 22/33
평택 22/33
백령도 21/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돌아온 류현진... 105일만의 복귀 '무실점 쾌투'

공격적 투구 속 볼넷 0개 기록

류현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6개를 뽑으며 3안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았다. 투구수 89개를 기록한 류현진은 스트라이크 60개를 쫓는 공격적인 투구를 펼치며 단 1개의 볼넷도 허용하지 않았다. 최고시속은 149km에 이르렀고 빠른 공과 커터, 체인지업, 낙차 큰 커브를 자유자재로 던지며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붕괴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0-0인 6회말 공격 1사 3루에서 대타 쪽 피더슨으로 교체됐다.

다저스는 피더슨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고 7회에도 2점을 추가, 3-0으로 앞서며 류현진이 승수를 추가하는 듯했다. 하지만 8회말 교체 투수 케일럽 퍼거슨이 동점 3점 홈런을 맞아 류현진의 승리가 날아갔다. 승리는 놓쳤지만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부상 전 2.12에서 1.77로 떨어뜨리며 견재함을 확실하게 알렸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진 이후 꼭 105일 만이다.

/최규춘 기자
/연합뉴스